



눈 성형

SM美성형외과 이상혁 원장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충동적 수술 안돼... 내 얼굴에 맞는 모양·방법 찾아야

사회 생활에 있어 외모가 실력에 못지않은 스펙이 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에 나서는 이들은 복장이나 패션은 물론 외모를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이 같은 추세는 예비 대학생인 수험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수능이 끝나면 옷이나 신발, 아니면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는 게 보편적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수능이 끝나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고3들이 피부관리나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위를 고치려고 병원을

여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쌍꺼풀 전용 테이프나 풀 등의 제품사용으로 서양 사람의 뚜렷하고 큰 눈을 동경하며 눈 성형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눈은 단순히 용모를 좋게 보이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또렷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과 열정을 품은 사람으로 보여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쌍꺼풀 수술
쌍꺼풀을 가장 흔히 하는 쉬운 수



이상혁 SM美성형외과 원장이 눈이 작게 보여 답답한 인상을 주는 남성을 상대로 눈성형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 창 '눈' 단순한 외모 넘어 인상 좌우

수술 전 눈꺼풀 처짐 증상 유무 꼭 확인해야

찾는 경우가 상당하다.

'공부할 나이'라는 타이틀 이전에 한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성형수술을 하고 싶단 이야기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예전엔 자녀들이 성형 수술한다면 무조건 말리던 부모들도 '외모 스펙'이란 사회 분위기에 자녀에게 먼저 성형을 권유하며, 함께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형수술 1순위는 뽀뽀뽀뽀도 단연 눈 성형 수술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눈은 대부분이 눈 두덩이가 두툼하고 쌍꺼풀이 없고, 눈의 안쪽을 피부가 덮고 있으며, 눈이 작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무표정하고 날카로우며 보이는 게 특징이다.

술성형수술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은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다.

얼굴 전체의 모양과 코의 형태, 안구 형태등을 고려해 미적 감각과 숙련된 기술이 종합적으로 함께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방법으로는 절개법과 매몰법, 부분절개법이 있다. 매몰법은 보통 '짹 수술'이라 불리는데 붓기가 빨리 빠지고 흉터가 남지 않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눈꺼풀이 얇고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매몰법으로도 충분하지만 눈꺼풀이 두껍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매몰법과 절개법의 중간 형태인 부분절개법은 절개법과 매몰법의 장

점만을 가졌지만 늘어진 피부나 두꺼운 눈 등 교정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수술 전 안검하수 체크는 기본
수술 전 반드시 눈 뜨는 힘, 즉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증상의 유무를 꼭 체크해야한다. 이마를 찡그려 눈을 뜨거나 화난 듯한 인상을 주며 졸려 보인다면 눈뜨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안검하수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눈을 뜨는 힘이 약하다면 안검하수 교정술, 흔히 말하는 눈매교정술로 교정할 수 있다. 성형전문의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눈의 조건 중에 하나는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1mm 정도 덮고 있는 상태. 때문에 졸리거나 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뜨는 힘이 약해 그 이상 덮혀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시술자에 따라 다양한 수술방법이 있지만 원칙은 안검거근(눈꺼풀을 뜨게 하는 근육)을 좀 더 평평하게 당겨서 눈을 좀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하면, 눈이 커지고 또렷해져 써클렌즈를 낀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몽고안검하수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뒤틀림을 같이 한다면 눈의 길이가 늘어나며, 눈꼬리가 올라가 날카로운 경우에는 밀트임으로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가 완성될 수 있다.

◇연예인 기준 삼가고, 얼굴에 맞는 수술 선택
수성성형이라는 신조어에 맞게 수

능시즌을 겨냥해 각종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싼 수술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남들이 한다고 충동적으로 수술을 결심하지 말고 모 연애 인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감도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대중화된 수술이라도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인 만큼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얼굴형과 눈의 비율 등을 고려한 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설레고 들뜬 시기지만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생애 첫 번째 성형수술을 통한 자신감으로 활기차게 시작하기를 바란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 '환자 행복' 비전2020 선포식

조선대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이 최근 비전2020 선포식을 가졌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환자중심의 최적의 진료체계 완성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형 진료시스템 구축 ▲주도적 역할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효율적인 경영과 복지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봉사과 인류공헌의 실천을 목표로 인간의 평범한 가치인 행복을 환자와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안종모 병원장은 "2013년까지

는 '환자와 함께 가는 글로벌 치과병원'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치과병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35년 역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행사 후 병원 전 직원들은 병원을 출발해 남광주 시장 구간을 지나 양동시장 구간까지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광주천 환경정화 작업을 펼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내달 3일까지 임춘평 박사 소장전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이고 임춘평(전 임춘평피부과 원장) 박사 소장전을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전남대병원 1층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가을 그리고 겨울'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고 임춘평 박사의 소장 작품 150여점 중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담은 20여점이 선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평소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인성을 펼쳐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유명 화가들 이 산·바다·시골마을 등을 배경

으로 한 서양화 17점, 한국화 4점 그리고 임 박사가 직접 쓰고 그린 시화 1점이 전시된다.

고 임춘평 박사는 생전에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불우한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온정을 베푸는 등 진정한 인성을 펼친 의사였다. 고인은 전남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직업사범원 피부과 과장, 조선대의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981년 임춘평 피부과를 개원했다. 그는 1985년 지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 제1회 시민의 상(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허리둘레 알기'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강선규)는 최근 광주 감대중견컨센서터 뷰티박람회에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비만에 방을 위한 '나의 허리둘레 알기'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허리둘레측정, 혈압, 당뇨, 체성분검사, 스트레스검사,

혈관도화도검사 등을 실시했다. 나의 허리둘레 알기 건강캠페인은 비만예방 방법, 허리둘레와 비만과의 상관관계 등 유용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적극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8일 실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부 만성질환 '건선' 올바르게 치료하자 조선대병원 16일 시민강좌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돈)이 '세계 건선의 날'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선대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건선 바르게 알기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건선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피부질환으로 지속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조선대병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선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시민 건강강좌는 건선 및 건선에 대한 올바른

치료·관리법을 제공한다.

건선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봉석 피부과 교수가 '건선 바르게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건선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생

물학적 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건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조선대병원 신봉석 교수는 "건선은 전염성이 없어도 불구하고 사

회적 편견과 오해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질환"이라면서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를 통해 건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정보를 얻어 많은 건선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좌 문의는 조선대병원 피부과(062-220-3130)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천경매투자

1. 경매 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는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

3. 돈 빌려 주실 분

- 제1순위로 설정
- 낙찰가의 80% 정도
- 년 15% 이상 이자 지급

2. 공동 투자 하실 분

- 5천만원 이상 투자
- 등기로 법적 보장
- 매매 할때까지 함께 함

4. 입찰 대리 하실 분

- 원하는 경매물건
- 최저가로 낙찰
- 최소 비용으로 처리

(주)오천경매 직통 : 010-3605-5000 T : 525-5000

오피스텔 "급매"

1. 수기동 제일 OP, 29평
2. 20층 중 10층, 전망좋은, 내부 우수리
3. 현, 사무실 사용중
4. 용자 3500만원 정도 가능
5. 주차편리, 사무실겸 주거가능
6. 시세/감정가 - 1억1천만원 정도
7. 매매가 - 6,5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010-4667-9300